

이 주 **이용플** 입시 용어 풀이

진로 역량

희망 진로와 전공(계열)을 탐색한
노력, 준비한 정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중요

진로 역량은 전공(계열)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관심 분야를 탐색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을 의미합니다. 전공 관련 교과를 이수한 내역과 각 과목의 성취도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대학도 많습니다. 특히 자연 계열을 희망한다면 대학에서 공개한 전공(계열)별 선택 과목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학에서는 과목 이수 여부뿐만 아니라 학습 단계를 준수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학교가 관련 과목을 개설하지 않았다면 공동 교육과정을 활용해 보길 권합니다.

취재 송지연 기자 nano37@naeil.com

전공 적합성, 계열 적합성, 진로 역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진로 역량은 전공 적합성, 계열 적합성보다 의미가 넓습니다. 2016년 건국대를 비롯한 6개 주요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공동 연구에서 '전공 적합성'을 평가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한데 학생들이 '전공'에 집중하면서 활동과 경험을 지나치게 좁히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2021년에는 전공 적합성을 '진로 역량'으로 확장해, 전공(계열) 맞춤형 활동을 강조하기보다는 장래 희망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포괄하도록 했습니다.

각 대학이 진로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해요.

종합전형 서류 평가에서 진로 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2026학년 건국대는 진로 역량을 40% 반영했지만, 중앙대 CAU탐구형인재전형은 50%로 비중이 컸습니다. 대학별 세부 평가 요소도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공에 집중하는지, 계열·진로로 확장해 평가하는지는 대학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

각 대학의 진로
역량 평가 방식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본지 1196호 '위클리
테마'를 참고하세요.

